

회/원/도/서/관/탐/방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자랑인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도서관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중앙여자고등학교는 추계 황신덕 선생이 1940년 설립한 사립 학교이다. 추계학원은 추계초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대학원 포함)로 확장되었으며, 모두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 교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여러 건물과 조금은 복잡한 환경

에서 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탐방팀이 도서관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한 여고생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서관의 위치가 중학교 건물의 맨 위층(서별관 3층)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이었고, 도서관에 들어서자 서경은 사서교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학교의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른다

중앙여자고등학교는 한국전쟁 직후에 미군부대에서 책장과 책을 원조 받기도 하였지만 바로 도서관 개관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1956년에 이르러 반개가

식으로 개관하였다.

설립자였던 추계 황신덕 선생은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 ‘千金不貴讀書貴’, ‘朝日清明可讀書’와 같은 글을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으며, 1964년부터는 전담 사서교사를 도서관에 배치하였다. 그



▲ 도서실운영 시작 당시모습



▲ 설립자의 친필 글이 걸린 도서관 내부

결과 당시로는 획기적인 완전개개식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수-학습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도서관 시설은 2002년과 2003년, 2006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공식 방문도서관 선정으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전산화 작업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약 100평의 규모(교실 5칸 반 크기)에 서고와 제1열람실, 제2열람실, 모둠학습실(브라우징룸)을 갖춘 현재의 도서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자료는 단행본 26,000여권, 정기간행물 70여종, 기타 각종 어학, 영상, 음악자료 등을 갖추고 있어 학교도서관 중에서는 풍부한 장서량을 자랑한다.

직원은 전담사서교사 1명, 행정직원 1명, 사서직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재학생 근로봉사자, 주민봉사자, 인턴직원 등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봉사활동 중인 재학생

이렇듯 시설·자료·사람 도서관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춘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도서관은 1,65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 2009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표창상(학교도서관 운영 우수)과 2010년 제42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학교도서관, 암흑기를 지나다

서경은 사서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의 도서관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임 당시인 1980년대를 학교도서관의 암흑기(학력교사와 사지선다형 교육으로 학생들이 책을 보기 어려웠던 시절)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 학교에서 도서관의

입지를 지켜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책을 수리하고 정리하던 이야기, 독서실로 인한 도서관의 축소와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겪으면서 현재의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서교사로서의 긍지와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활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학교교육의 핵심공간으로 거듭나다

도서관은 2004년부터는 각 교과목 교사가 원하는 주제별 자료를 소장하고,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활발한 교과 협력·토론수업 등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교과교사의 질문을 해결하고자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이 다수였으며, 사서교사는 학

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원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캠프 등에는 행사의 주제와 관련된 교과관련 교사들이 적극 협력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 문화체험나들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지역주민(학부모)

평생교육의 시작, 열린 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에 개방



▲ 도서관 건물 입구 모습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서관이 있는 중학교 건물 입구에는 ‘중앙여자중·고등학교도서관’이라고 크게 쓰여진 현판과 함께 오른쪽 벽면에 ‘학교도서관 개방

안내’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있어 도서관을 학생 뿐 만이 아닌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정보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개방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학부모)독서교실을 2005년부터 운영한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지금도 독서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매년 4월부터 12월 까지 매주 화요일 독서토론, 독서체험나들이, 특강, 북페어 개최, 독서캠프, 활동전시회, 수료식, 활동자료집 발간 등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도서관이 주는 의미있는 선물 도서열람대출증

학생들의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자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대출증을 보완한 도서열람대출증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서열람대출증에는 개

인의 독서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읽은 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할 때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책을 많이 읽어 도서열람대출증을 추가로 발급받은 학생에게는 학교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 학교도서관에 있다

인터뷰 중에 쉬는 시간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읽고 싶은 책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니 이제는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보완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도서관활용수업 및 독서지도가 중요하다. 이를 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와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교육관련 중앙부서에 학교도서관 전담 독립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우리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학교 부속기관으로 사서교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 교육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교수-학습의 파트너로서의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



▲ 도서열람대출증 보관대

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능력 개발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문가인 사서교사는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 사서교사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처음의 열정을 지니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학교도서관은 모든 관중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도서관계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학교도서관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서경은 사서교사의 말을 들으며 이런 열정적인 사서교사와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밝은 미래와 그 무한한 잠재력에 즐거운 기대를 해본다. (웃음)

■ 글 · 사진: 김태경, 박현우



▲ 리모델링 후 도서관 모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전화 : 02-363-6818

홈페이지 : <http://www.centerlib.org>